

KT&G 100억대 비자금 포착

검찰, 협력업체 통한 비자금 조성 수사 착수

KT&G가 협력업체들을 이용해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민영진 전 KT&G 사장 재임 당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해 퇴사한 임원급 내부고발자로부터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KT&G가 삼성금박카드라인, 유니온테크, 정아공업사 등 협력업체 3곳을 통해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이들 협력업체는 KT&G와의 거래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KT&G가 사업상 우월적 지위를 비자금 조성에 이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협력업체 관계자, 민 전 사장 측근인 전직 임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고 있다.

KT&G 퇴사 후 협력업체에 재취업한 전직 임원들이 뒷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들 중 상당수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KT&G가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민 전 사장이 비자금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조성한 비자금이 민 전 사장에게 흘러들어갔는지 등이 이번 검찰 수사의 주요 포인트로 꼽히고 있다. 민 전 사장이 비자금 조성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파악될 경우 그에 대한 직접 조사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베트남 사로 잡은 ‘초코파이’

오리온, 베트남 누적매출 1조22억원 돌파

오리온은 베트남 누적매출이 1조원을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오리온은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 840억원을 올리며 베트남 누적 매출이 1조22억원을 기록했다.

베트남에서의 고성장은 초코파이와 스낵 제품들이 이끌고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판매량 20억개를 기록한 초코파이는 베트남 파이 시장에서 점유율 38%를 차지하며 국민 파이로 자리매김했다. 포카칩, 고래밥, 오!감자 등 스낵류는 오리온 베트남 매출의 25%를 차지하며 핵심 카테고리 성장 중이다.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통했다. 오리온은 초코파이 제품포장에 한국의 ‘정(情)’과 유사한 뜻을 지닌 베트남어 ‘Tinh(띤)’을 넣어 현지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데 성공했다. 베트남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춰 국내에 없는 독특한 맛을 개발한 현지화 전략도 통했다.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현지인들에게 친숙한 오징어맛, 스테이크맛, 해조류맛, 새우맛 스낵류 제품들을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원성열 기자



이동통신3사는 기업고객이 사업자 공인인증서를 안전하게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용 스마트인증’ 서비스를 내놔다.

뉴스1

기업 인증서 관리도 유심으로

이통3사, 기업용 스마트인증 서비스 출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자 공인인증서를 관리할 수 있는 ‘기업용 스마트인증’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업용 스마트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지정한 보안 1등급 매체인 ‘유심’(USIM)에 사업자 공인인증서를 저장해 직원들의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다. 해킹이나 복제가 불가능하고 기업의 관리자가 임직원의 인증서 발급과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관리자는 임직원의 인증서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사용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까지 통제할 수 있다. 또 인증서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사용내역에 대한 통계도 적시에 확인할 수 있다. 근거리무선통신(NFC)을 지원하느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전용 고객센터(1577-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단말기당 연 9만원(VAT 별도), 한편 3사는 지난해 7월 개인용 공인인증서 관리 서비스 ‘스마트인증’을 출시한 바 있다.

김병근 기자

회사원 강 모(35)씨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필리핀 보라카이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뒤늦게 준비를 시작했지만 별 걱정이 없다. 항공권과 숙박, 입장권 등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티몬’ 한 곳에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씨는 9월25일 인천에서 보라카이로 향하는 필리핀항공 왕복티켓을 67만6500원에, 현지 인기 리조트 ‘크라운 리젠시’를 1박당 12만4679원에 5% 적립을 더한 혜택으로 예약했다.

항공·숙박·관광... ‘티몬’ 하나면 여행준비 끝

최저가 수준 ‘원스톱 여행채널’ 구축

제주도닷컴·탐항공 제휴...실시간 예매
세계 50만곳 숙박 예약 ‘호텔의 신’ 론칭
여행지별 입장권·교통권도 구입 가능

소셜커머스 기업 티켓몬스터가 여행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상품 다양성과 가격면에서 기존 전문 여행사이트와 견줘도 손색없는 서비스를 선보여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항공권과 숙박, 관광지 및 교통 이용권 등을 모두 국내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하는 ‘원스톱 여행채널’을 구축해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닐 필요 없이 여행을 준비할 수 있다.

●항공·숙박에 현지여행까지 한번에

먼저 여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공권 부문에선 국내는 제주도닷컴, 해외는 탐항공과의 제휴를 통해 실시간 예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검색 등을 통해 항공권을 최저가로 예매할 수 있다.

항공권 다음으로 중요한 숙박 부문에서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 50만개 호텔과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상품을 최저가로 예약할 수 있도록 돕는 실시간 숙박예약서비스 ‘호텔의 신’을 최근 론칭했다. 이 서비스는 티몬의 국내 및 해외항공권 예매서비스와 더불어 고객들이 실시간으로 여행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다



음달 11일까지는 해외호텔 5% 적립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여행지의 각종 입장권 및 교통권 등도 구입할 수 있다. 일본 간사이 지역의 버스과 지하철, 전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간사이 쓰루패스’는 1만3000장 넘게 팔렸고, 일본 전역에서 6820원에 4G LTE를 쓸 수 있게 해주는 ‘포켓 와이파이’ 대역권은 4000장 이상 판매됐다. 싱가포르 유니

버설 스튜디오 입장권과 프랑스 파리 박물관 및 미술관 60여곳을 이용할 수 있는 패스 2일권도 2000장 넘게 팔리는 등 인기를 모았다.

●제주도 여행 상품도 풍성

티몬은 국내, 특히 제주도와 관련한 다양한 상품도 구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항공권의 경우 제주항공과 티웨이 등 저가

항공사(LCC)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등 대형항공사 티켓까지 핫딜 형태로 매일 판매한다. 편도 기준 2만~5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지난해 티몬에서 판매한 제주 항공권은 총 40만장이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지난해 판매수량을 따라잡았을 정도로 성장세가 가파르다.

숙박의 경우 7월 오픈한 서귀포의 ‘파크 선샤인 제주’ 호텔은 1박 기준 8만3000원에, ‘원리조트’는 추석연휴 기준으로 1박에 6만7500원에 예약할 수 있다. 제주 렌터카는 엑센트와 레이 등 소형차는 쿠폰 적용가로 2만9000원부터, K5와 YF소나타 등 중형차는 3만6000원부터 구입할 수 있어 더욱 알찬 여행을 돕는다.

이 밖에도 제주 앞바다에서 배낚시를 즐길 수 있는 상품은 1인 1만2000원, 서귀포 테디베어 뮤지엄 입장권은 8500원, 한화 아쿠아플라넷과 세계자동차 제주박물관 입장권 패키지는 3만2400원에 판매한다. 3만원 이상 구매 시 적용되는 3000원 쿠폰을 쓰면 2만94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한재영 티켓몬스터 최고전략책임자는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티몬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둘러봐도 관련 준비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항공권과 숙박, 각종 이용권을 최저가 수준으로 갖췄다”며 “실시간 항공권 및 숙박예약시스템 완성으로 사전 준비는 물론 당장 여행을 떠날 때도 믿고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부산 강타한 ‘원저 W ICE’ 서울·수도권 출시

소비자·업소 문의 붐...한정 수량 판매

디자이너오코리아는 알코올 도수 35도의 프리미엄 스피릿 드링크 ‘원저 더블유 아이스(W ICE by Windsor·사진)’를 서울·수도권 시장에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원저 더블유 아이스는 3월 부산·영남지역에 출시된 이후 한 달 만에 3개월치 재고가 소진되어 항공 운송을 동원하는 등 공급이 수요를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주목을 받은 제품이다. 디자이너오코리아 관계자는 “서울지역 출시를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으로 계획했었지만 소비자와 업소들의 문의 및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한정된 물량으로라도 서울·수도권 시장에 서둘러 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원저 더블유 아이스는 부산·영남 지역 출시 4개월만에(3~6월) 판매량

이 2만2420상자(1상자=9리터, 44만8400병)에 이르며 취급 영업장 수도 3000개로 늘었다. 아울러 영업소의 재주문 비율이 일반적인 수준인 40~50%를 훨씬 뛰어넘는 83%에 이르는 등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런 인기를 근간으로 원저 더블유 아이스는 출시 5개월 만에 가장 큰 시장인 서울·수도권지역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게 됐다.

디자이너오코리아 조길수 대표는 “원저 더블유 아이스는 35도라는 낮은 도수보다는 부드러움을 극대화한 맛과 한국인들에게 최적화된 향이 성공 요인으로, 위스키의 품미는 유지하되 부드러운 목넘김을 원하는 소비자의 마음을 읽은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원저 더블유 아이스는 주세법상 ‘기타주류’로 분류되며, 출고가격은 450ml 기준 2만4530원(부가세 포함)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배럴 ‘아이부럽지 캠프’ 공식 후원

위터 액션 스포츠웨어 브랜드 배럴은 21일부터 3일간 경주 국립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트레일러닝 캠프 ‘아이부럽지 in 경주’를 공식 후원한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런엑스런(RunXR un)의 ‘아이부럽지 캠프’는 트레일러닝과 피크닉이 결합된 독특한 행사다. 약 50km 길이의 코스를 정해진 시간 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만 하면 된다. 중간에 먹고, 마시고, 쉬는 모든 것은 참가자 마음대로다. 트레일러닝 후에는 바비큐파티와 브런치 등 다양한 이벤트로 캠프 분위기를 낸다. 배럴은 이 행사를 위해 특별 제작한 한정판 매쉬 캠프 선글라스를 참가자 전원에게 제공한다.

배럴 관계자는 “경주 남산을 비롯해 숨어있는 골목과 마을, 문화 유적지 등 경주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명소들로 구성된 자연친화적인 코스라 보다 건강한 달리기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답답한 일상을 떠나 지역의 산과 바다, 호수 등 자연을 최대한 즐겼으면 한다”고 전했다.

최현철 기자 choihs2@donga.com

2015년형 ‘다이나믹 하이킹’ 출시



노스페이스가 가을·겨울 시즌을 맞아 니트릭으로 촘촘하게 엮은 엔지니어드 메쉬 소재를 적용해 발등까지 부드럽게 잡아주는 ‘다이나믹 하이킹(DY 5G BOA·사진)’ 등산화를 출시했다. 국내 아웃도어 등산화 시장에 새로운 지평을 연 ‘다이나믹 하이킹’ 시리즈의 2015년 신제품이다. 별도의 끈없이 다이얼로 와이어를 조절하는 보아 클로저 시스템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착용감을 제공한다. 발뒤꿈치 부분에 발바닥과 관절의 뒤틀림을 효과적으로 잡아주는 스테이بل 힐걸을 적용했다. 색상은 레드, 네이비, 옐로, 브라운, 카멜 총 5가지. 가격은 22만원이다. 30일까지 노스페이스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TheNorthFaceKR)에서 다이나믹 하이킹 출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양형모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언니가 다시 일하러 돌아왔다!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여성일자리 재창출 캠페인 ‘언니가 돌아왔다! JOB-CONCERT’에 참가한 여성들이 정리수납 컨설팅업체부스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이 행사는 결혼,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서울시가 후원해 열렸다.

뉴스1